濟大新報

発行人 玄平孝
主幹 金永和
濟大新報社
濟州市我羅洞1番地
電話 (③) 6141~7 (교) 2269
우편번호 590
印刷：濟州新聞社

<교훈>
眞理 正義 自我 自進 自就

종합대로 개편후 처음 맞는 제27회 학위수여식

學士5百53·碩士7名배출

16名이 학점未達로 졸업 못해

제27회 학사학위및 제3회 석사학위수여식이 지난19일 오전11시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종합대학교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행해진 이번 졸업식에는 玄平孝총장을 비롯 崔在榮道知事, 학생처장, 교무처장, 동창회장, 기성회장, 학부모들이 새로이 배출되는 석사 7명·학사 5백53명등 총 5백60명의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상에 高興植군(농학과)

국회의장상 金琮官·대법원장상 夫明順
국무총리상 梁東起·문교장관상 尹致富
총장상 인문대 金愛淑등 각과수석 25명

이날 거행된 졸업식에서 玄총장은 회고사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학사및 석사학위를 받게된 졸업생들에게 전교직원과 더불어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82년도 종합대로 승격된 이후 배출되는 최초의 졸업생인 만큼 모교에 대한 긍상한 고용식(농화학)군이 차지했다.

전체수석은 대통령상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상=김종관(식공) △대법원장상=부명순(일어) △국무총리상=알동기(경영) △문교부장관상=윤치부(국교) △총장상=김애숙(수교) 김완종(생교) 강영봉(물교) 문남희(가교) 김덕보(체교) 변정은(미교) 허범수(농화) 현창종(농화학) 이우준(원예) 양영운(축산) 김인옥(어로) 이정의(중식) 김동식(통신) 양행진(기공) 강동일(식물) 김철수(식공) △총장표창(공로)=조성원(경영) 오정보(영교) 송영식(경영) 손충헌(축산) 송일상(영교) 박창곤(통공) 김인수(식공) 현유찬(체교) 김정봉(일어) 김현자(미교) 오덕수(관광) 이경희(국교) 황문석(원예) 강성범(행정야간) 김부원(경영야간) 김경호(사회) 고성인(중식) 송윤원(통공)·한편 1983학년도 ROTC 입관식이 2월23일 10시 관계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3월3일 입학식

수석합격에 海資科 김수정양

83년도 신입생 1천8백85명에 대한 입학식이 3월3일 오전 10시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다.

玄平孝총장을 비롯하여 도내외인사, 교수, 학생등 다수가 참석하여 행해질 이번 입학식은 신입생인학허가선언, 신입생선서, 총장훈시등으로 진행되게 된다.

한편, 신입생중 입문계열 전체수석자는 4백85·7점만점에 4백39·7점을 얻어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앙이고, 자연계수석은 해양자원학과를 지원한 김수정양이 4백44·2점을 얻어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다.

24일부터 오리엔테이션

각單大별로 실시, 교육내실화에 중점

8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4일부터 3일간 입문대와 사회과학대를 비롯, 각단대별로 실시된다.

신입생들의 바람직한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 대학안내, 각부속기구의 소관업무 소개와 이용안내, 학생활동안내를 목적으로 인문대 세미나실과 사회과학대 중강당에서 각단대학장의 이때의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 신상기록카드 교육도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보면, 단대내 주요보직자 소개, 사무국의 대학인력및 발전계획 소개, 학생처·교무처·학생생활연구소·학도호국단 안내, 도서관 이용 안내, 병사 안내, 교가 연습등이며 이기간에 신상기록카드 교육도 이때 올리게 된다. 각단대별 오리엔테이션 일정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24일=인문대I—인문대세미나실, 사회과학대I—사회과학대 중강당, 야간강좌—용담캠퍼스 도서관

△25일=사범대I—사회과학대 중강당 농과대I—인문대세미나실.

△26일=해양과학대I—사회과학대 중강당.

한편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기하기위해 예년과 달리 입학식 이전에 실시된다.

한편 8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오는 3월3일 오전10시부터 체육관에서 거행된다.

여 입학식이 끝나면 각학과별 오리엔테이션과 지도교수와의 대화가 각학과 강의실에서 실시되며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된다.

호국단 동계연수

건전한 활동위한 세부계획수립

학도호국단 동계간부연수가 최고 제대간부 16명과 중간 제대간부 30명등 총 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월31일부터 1박2일간 서귀포시 복자수도원에서 있었다.

이번 동계간부연수는 학도호국단 간부들로 하여금 연수를 통하여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관을 확립하게 하고 83학년도 학도호국단 활동을 보다 건전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한편, 이들은 연수중에 예산편성 실무자의 오리엔테이션을 비롯 동창회장·도

校誌23집발간

크라운판에 다양성기해

濟大学報 제23집이 지난 19일 속간되었다.

종래의 국판에서 크라운판으로 판형을 바꾼 어번 학보의 특집으로는 「제주도 개발의 재조명」과 「역사의식」을 다루고 있으며 기획취재로는 「제주도예술의 현황과 전망」을, 르뽀로는 잊혀져 가는 제주도의 풍물을 다루는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편집은 재대학보 편집위원회(7인)에서 맡았으며 8천부를 발간했다.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보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교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독립된 편집부의 설치가 바람직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학연구회 회지창간호 발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연구회(회장 강세현)에서는 「濟大社会学」創刊號를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발간했다.

매월 월례발표회를 통하여 학술활동을 펴오던 사회학 연구회에서는 이번을 기점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회지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과학대학 B동 준공

공사비 총10억여원 투입

사회과학대학 B동 준공식이 지난 1월31일 현총장을 비롯, 현학순사회과학대학장등 교직원및 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건평 4천1백98㎡에 총 10억8천3백21만여원의 공사비를 투입,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주로 학과 사무실·교수연구실로 이용되는데 시청각실 영상실·과제도서실·회의실 자료실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현총장은 정덕용씨(삼건사 대표이사)와 신강하씨(현장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과학대학 B동 건물은(주)삼건사에 의해 지난해 4월28일 착공되어 지난 12월27일 완공되었다.

학사경고자

1백7명으로 집계돼

82년도 제2학기 학사경고자 명단이 지난 2월10일 발표되었다.

이번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모두 1백7명으로 1학기(1백50명)에 비해 43명이 줄어든 숫자이다.

이들을 대학별로 보면 농과학대학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범대학 26명, 인문대학 15명 사회과학대학 14명, 농과대학 13명순으로 되어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 65명, 2학년 31명, 3학년 11명 등이다.

한편 학칙 제30조에 의하면 학사경고는 재학중 학업성적 평균 65점에 미달된 자와 2과목 이상 F학점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기간중 3회이상의 경고를 받게 될 경우는 제적처리가 된다.

호국단비인하

1만2천원으로

학도호국단비가 83학년도 신학기부터 문교부 행정조치로 인해 20% 인하됐다.

따라서 83학년도 학도호국단비는 82학년도 1만5천원에서 3천원이 내린 1만2천원이다.

대학원합격자

총64명 확정발표

83학년도 대학원및 교육대학원 합격자가 지난 2월27일(대학원)과 29일(교육대학원) 각각발표되었다.

각 대학원 교무과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의 수는 일반대학원은 박사과정 수산계 1명, 석사과정 농학계, 수산계, 이학계 26명등 총27명이며 교육대학원은 국어·영어·수학·국민윤리·생물·물리교육전공등 총37명이라고 한다.

학사능연구소 실험착수

本道화산액토 흡수과정

방사능이용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4일부터 농화학실험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실험연구는 제주도 화산액토 흡착색 두가지 토양을 대상으로 P₂O₅인산(H₃PO₄)의 동위원소를 써서 흡수과정을 추정, 인산인자의 흡수여부를 규명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이 실험은 농과대 농화학과 유장경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진들과 UN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공동합작연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동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이상의 연구이외에도 식품저장및 지하수문제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卒業을 祝賀합니다
제대신보사 기자일동

▶한마디◀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이며, 불가능한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신앙이다.
—괴테—

諨告辭

先進祖國 창조위해 전위적 旗手로서 새로운 지식섭취 기량습득에 精力 기울여야

캠퍼스표정

새로운 과정의 시작

오늘 이 자리에 崔在榮道知事님을 비롯하여 道內 여러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 동창회장과 기성회장, 학부모 제위를 모시고 본교 제27회 학사학위및 제3회 석사학위수여식을 거행하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全人的 인격도야에 힘을 기울인 결과 영광스러운 학사학위및 석사학위를 받게 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전교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졸업생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헌신적으로 힘쓰신 학부모님들과 본대학 발전을 위해 늘 음양으로 협조해 주시는 도내 각급 기관장님, 동창회원 기성회원 여러분, 그리고 후학의 교육에 熱과 誠을 다해온 교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데 본교는 제주초급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30년이 지나는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읍니다. 개교 당시의 제주학교 시절, 제주농고 부지에서의 가교사 시절, 용두암 곁 피혁공장 시절, 용흥동과 서귀포 분산 시절등 오랜 세월을 일정한 캠퍼스도 없이 지내왔고 또 설립되는 해에는 총 교직원 수가 불과 11명이었지만 모두 약 일년간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탐구와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해 즉 1982년은 本大学校로서는 特別히 기념해야 할 한 해였읍니다. 오래동안 온 濟大人의 염원이요 全道民의 宿願이던 綜合大学 昇格이 드디어 成就되어서 82년 3월1일 濟州大学校로 改編되었다는 것은 이 大学校의 年革史上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綜合大学 改編과 함께 五個 単科大学이 殷盛되었고 大学院에서는 박사과정을 두게 되어서 이 大学校에서도 3·4年內로 박사를 輩出하게 되었읍니다. 이와같이 学校體制및 機構編制의 拡大와 아울러 外形的으로는 각종 施設이 계속 拡充되었고, 內面的으로는 勉学雰囲気가 국내 어느대학보다도 安定되어서 学生들의 学究熱이 가장 高揚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활동, 光生物学分野의 국제학술 워크숍의 開催등 1년간 실로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고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해 온 1·2년간은 본대학이 종합대학을 서두르는 과도기였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다사다난한 시기이어서 면학을 위한 직전적 시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불비한 상황속에서도 장차 새시대의 발전된 대학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현명하게도 学生의 本務인 勉学에 전념해 왔던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생활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은 여러분의 人生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国家観·世界観을 더욱 투철하게 하여 새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저력을 기르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어떤 과정의 마지막을 뜻함과 동시에 새로운 과정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긴 인생항로에서 볼 때 다른 일을 시작할 계제가 마련되었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의 캠퍼스가 아닌, 사회의 훌륭한 대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성실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다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읍니다. 이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대학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기량을 토대로하여 사회의 새로운 창조와 개혁을 주도하는 전위적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의 어떤 부분에 종사하든 선진조국을 창조하는데 그 기수로서 가장 앞장서서 활약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先進祖国의 創造를 위하여 온 国民이 총 매진하여야 할 계제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은 時代的 現実的 要請이요 또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付與된 課業입니다. 여러분은 솔선해서 이 現実的 要請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전위적 旗手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근자에 와서는 모든 分野의 학문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변화해 가고 있읍니다. 2·3년이 멀다할 정도로 새로운 理論體系가 세워지고 技術이 開発되어 나오는 時代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대학시절에 배운 지식과 기량이 평생토록 有用하리라는 생각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읍니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와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학문에 어둡고 知的·技術的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을 平生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은 학상 새로운 지식의 섭취와 기량의 습득에 精力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문을 나서고 있읍니다. 평생동안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교문은 많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오늘의 이 순간처럼 성공과 영광이 깃들기를 축원하고 우리 모두가 장학스럽게 여길수 있는 국가사회의 일원이 되어 주기를 期待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주신 각급기관장님, 내빈 여러분, 동창회원및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오늘 졸업해 나가는 이분들이 이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되고 正義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의 손길을 펴주시고 引導의 恩德을 입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졸업생 여러분은 비록 교문을 떠나더라도 한가족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힘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2월19일

총장 玄平孝

여러분들의 榮光된 卒業을 祝賀합니다

<1982학년도 졸업생 명단>

●인문대학

일본어과
김애숙 장수현 현혜숙 한복희 조정금
장안순 김영심 부명순 김성봉 오정은
김희돈 김인희 강복순 문영철 이선화
양안재 최용채 문전욱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김길희 김순희 장경철 신명화 김학철
김학범 김기홍 고두성 김형근 이복자
문영희 배규병 김찬익 현근종 김성효
오태길 문영일 고천일 박규봉 천지홍
허근자 강익주 강창우 김창호 장보앵
최문성 이명숙 김태석 김지훈 양석훈
강순병 임수진 현규철 오성복 김영우
강홍철

경영학과
송영식 양해란 문영수 고행관 김홍진
한제훈 함형희 김영대 김동식 현계홍
김민하 좌경희 문선애 김미경 송원비
오옥자 황태성 박태언 문훈철 박화수
김석환 김익백 최성호 부남호 김승박
백남훈 조성필 김원봉 고승훈

관광학과
김병식 김경진 박성문 왕홍란 정풍해
유제경 윤희순 고금희 신동호 강윤구
임상린 장상철 장주민 김대홍 오덕수
이강은

사회학과
김수원 이성희 윤영춘 고권민 이광용
오관준 장진혁 이제은 오승호 김영애
김동성 한용옥 김경호 문석종 김경보
박정환 고창성 이방우

(야간)행정학과
한승일 고용성 김상희 강성범 김익선
현춘식 이명도 고여호 김용작 박승봉
김 훈 홍성료 강성진 김창신 남상민
박원형 이정호 임상순 김원종 김순종
장승환 부두판 김동용 양백훈 김덕남
고성전

(야간)경영학과
양순향 이영옥 공향순 김창연 김인순
김옥순 육원희 양동기 변용판 송상보
허태식 양도현 김동선 현천국 김창흠
주창규 박봉수 김순영 김용천 장성천
김두원 김종수 양순옹 임영식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송창선 이복순 한경애 부숙희 이경희
김복심 신봉균 한강범 허철민 윤치부
강정순 조애란

영어교육과
오정보 홍정화 김희향 신정순 김영란
장영복 조순희 황순애 강경애 진명희
김희수 김순옥 이창훈 장윤정 안용태
김상철 소재익 이석문 강혜정 송일상
양희숙

수학교육학과
임상수 김홍국 이명숙 김창식 고은희
조애숙 강병호 고은주 양재익 오유미
이복자 고영종 신경호 좌석호 정은영
김미현 문영봉 이근표 김영대 좌창보
문경엽 좌여정 김시욱 강경우

생물 교육과
강동진 임순희 현승호 강선박 김용정
진삼주 김병박 김대호 김완종 김세재

물리교육과
강수철 한대희 고영은 김풍수 김한국
박재현 변명수 안진성 강봉화 김정숙
현덕재 고성관 장영봉 고권정 문충식
고광수 공춘식 문성환

가정교육과
고정자 김형희 문영숙 강경자 고영미
고명순 이명자 문란희 김영미 최선미
김숙희 박정자 장양선 정문순 좌영자
고희자 이경희 권형자 이정숙

체육교육과
강명덕 이현빈 양덕부 한민희 이태길
송복자 김승빈 김명춘 이종찬 현유찬
한복희 정중곤 박병재 백남철 박태수
김덕보 진성주 임성문 김병석

미술교육과
김형선 김미영 김재금 정용근 허신선
고정순 허지영 조윤득 김맹희 김은희
김경숙 이경애 변정은 최명숙 박미정
김현자 이성학

●농과대학

농학과
김남식 김한철 허정윤 허법주 변기환
김태준 고영구 신학근 이인수 유승환
정태만 김영만 박순종 고인배

농화학과
안복길 정광문 고영제 고연경 이방근
오명자 김남훈 강근영 오영애 김기우
안경하 김영철 전병현 정영순 고희종
양은순 장선욱 최경남 강봉윤 이정숙
고상순 양문호 고은기 서명석 김도희
문종철 장용석 오택진 현창종 강명요
문광언 김태행 임홍재 양기탁 박창석
이동식 고홍식 김용철 홍건표 강상헌
김태민 현종훈

원예학과
김석범 양순옥 오연희 이희선 이연심
양석연 양임순 김효진 오승희 강정국
이순성 김미희 고현희 김경림 김두영
김 탄 이정실 김승희 김병대 부희옥
부재일 이법권 황문석 정용택 이우준
양전국 정용규 강보경

축산학과
최선기 강승욱 박철희 박영길 민종섭
김대익 정형권 이철원 손종헌 양영훈
김영봉 이종균 오문옥 송상택 현상민
현봉수 정호영 박세필 강권병

●해양 과학대학

어로학과
김영효 김정용 신성은 이재은 김보건
오용우 김태석 오태철 김영기 김경수
강상돈 서정우 고임성 김상곤 오호삼
고석부 안선모 김인옥 강승하 홍진기
양재필 윤성보 정국진 이정환 강 철
김권남 김석곤 고봉찬 하민철 김영오
이인식 하동식 위광준

증식학과
노강원 고성인 한경석 고관훈 고석훈
정연식 양영철 박규호 백종환 김창원
김형근 김유진 양영철 정기창 오성훈
고창완 이정남 이정의 양경환

식물학과
김형의 오애숙 강정희 허은희 오현숙
강여숙 김성대 강태종 송미숙 양용옥
강애영 이명옥 현창숙 양정화 오정림
고상옥 정안나 강동일 이승권 유필화
양승일 송경철 오한준 김동석 윤장택
김춘심 김남권 김은희 양영환 하히종

식품공학과
양현순 김영미 김혜정 김혜심 김현정
김철수 현혜숙 서영실 강승범 박춘규
오중인 정순식 조순래 고윤형 고인홍
김광익 김종관 문경수 양건중 이규진
김인수 홍영윤

기관공학과
양행진 박시홍 신용한 현길호 김형훈
김석화 조성배 신용음 강성관 고제협
고광필 김부현 한진규 송정근 강윤용
오인준 고태규

통신공학과
강인숙 현원학 이춘심 고형준 송윤원
김경순 전정애 김경섭 박창곤 이금순
고성호 손연희 강상호 이승철 박진만
고명희 양평관 김동식 현농제 김용주
신태식 고광훈

제주대학교

大學理念과 社會理想

—卒業生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당부—

社說

(1)

大學敎育의 전 과정을 마치고 學士學位를 받아 社會로 나가는 5백60명의 本大學 卒業生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祝賀를 보낸다。그것은 오늘이 이 社會가 有能하고 새롭고 깨끗한 人材들을 통하여 이 社會는 보다 나은 社會로 發展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이러한 祝賀는 곧 發展되고 福된 社會 建設에 대한 大學人의 熱望의 表現이기도 하다。

人間의 一生을 통하여 가장 순수하고 가장 情熱的이고 가장 왕성한 힘을 가진 靑春期를, 學問的 知識을 쌓고 技倆을 기르며 眞理와 自由에의 熱望으로 知性을 쌓을 수 있는 大學人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요 祝福 받은 일이다。그만큼 大學에서 얻은 것은 소중한 것이다。그것은 自我의 實現을 위해서나, 社會 正義의 具現을 위해서나 發展된 社會 建設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 것이다。그러기에 卒業生 여러분이 大學의 課程을 마치고 社會에 나간다는 일은, 個人과 社會 國家에서 볼때 더 나아가 人類 共同의 立場에서 볼때 祝賀의 이 자리에서 더없이 큰 의미를 지니게된다。

그러기에 祝賀의 이 자리에서 더없이 짙이 되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이것은 곧 우리의 期待이기도 하다。

(2)

첫째는, 一生을 永遠한 大學人의 자세로 精進해 달라는 것이다。그동안 大學에서 연마한 것은 知識과 技倆이지만, 大學生活을 통하여 우리가 體得한 것은 人間 眞實의 價値와 自由와 眞理의 소중함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人間의 未來에 대한 確信이며, 社會와 祖國의 發展을 위한 우리 자신들의 能動的 參與意慾이었던 것이다。그러므로 大學이, 世俗的인 目的 指向을 위한 過程이 아니라, 人類와 世界가 추구하는 理想的 社會 建設의 바탕이 이뤄지는 꼬이란 인식을 새롭게 가져, 비록 大學의 門을 떠났으나 여러분의 가슴에 大學人의 모습은 영원히 지녀서 社會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외면으로는 보잘것없더라도 大學人의 자세로 그것에 임할 때, 진정 삶의 眞實과 社會的 慾求가 充足될 것이며 大學이 추구하는 理想을 바로 社會속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가 바라는 것은, 번영이나 자유스러움이 온전히 眞理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이 땅 위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여기에 여러분의 責務가 있는 것이다。여기에 부딪쳐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批判하고 또는 改革하는 發展的 行動樣式속에 여러분의 생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에 일하지도않고 팔장을 낀 채로 구경나 하면서, 是非하고 회의하며 무서워하는 나약하고 진실되지 못한 무리들을 종종 대한다。더구나 그러한 삶의 樣式이 가장 眞實된 것처럼 타인과 스스로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았었다。大學人의 생활 特性은, 부단한 自己體驗을 통해 社會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社會的 自我로서의 世界觀을 확립하는데 있다。여기에 쉬임없고 뜨거운 行動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省察이 요구되며 그래서 진실된 自己認識에 도달하게 된다。이는 學理를 探究하는 자세이기도 하다。눈 앞의 작은 결과에 만족하거나 자기 개인의 문제에 狂奔하여 世流에 휩쓸려 살아가는것은 가장 反大學的인 물리적 거리감이다。

象牙塔은 社會와의 물리적 거리감에서 생각해서는 안되며, 혹 그것은 非實際的이며 知的 優越에 만족하는 現實과의 相衝性에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그것은 오히려 世界와 現實의 위에서나 앞에서 존재하며 作用한다는 인식을 가질때 그것의 참 의미가 찾아질 것이다。즉 大學은 社會를 先導하고 改革하는 座標이며 人類가 指向하는 바 새로운 세계, 警異로운 세계의 創造에 앞장서는 데 참 大學의 의미가 있다。여기에 뜨거운 情熱과 行動이 진실속에서 추구되어질 것이다。

(3)

해마다 수많은 大學卒業者가 社會로 나가고 있다。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추구하여 생활속에 간직했던 갖비싼 것들을 쉽게 벗어던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時流에 몸을 맡겨 살아가고 있다。얼마간 지녔던 社會 初年生으로서의 잘등도 곧 社會適応이란 앙식으로 극복해 나간다。이는 大學人으로서의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大學人이 그들이 간직하고 키워왔던 大學의 理念을 社會의 理想實現을 위해 자연스럽고 고통스러움에 合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이것은 大學人이 바라는 바이고 社會가 所望하는 것이기도 하다。卒業生 여러분들의 분투속에 여러분의 幸運이, 이 社會의 發展이, 人類 공동의 理想하는 社會가 이뤄지길 바란다。이는 여러분들 한 大學人들의 간절한 바람이요 期待이다。

地方行政組織 정비의 방향

계층구조는 적을수록 이상적

갑오경장 당시 4단계 지방행정구조 정착

姜昌佑

一、序論

우리 나라는 지난 1961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채택, 실시한 이래 1981년에는 제3차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이 19년 동안에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제·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71년부터 실시된 제3차 5개년계획부터는 경제개발 외에 사회개발도 점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 외에 사회발전도 괄목할 만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 나가 제5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6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국민 1인당 GNP는 약 2천불에 달하고 주택보급율도 1백%에 달하며,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화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 대폭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의 생활수준과 생활방식이 선진국의 그것에 거의 뒤지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도의 성장과 발전이 이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욕구수준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또 새로운 행정여건도 계속하여 조성되어 나갈 것이므로,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service needs)도 계속 창조되고, 이에 따라 행정시책도 끊임없이 개선·향상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살펴 보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문제의 범위를 지방행정에 한정하고 지방행정수요의 변화에 한정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시책 내지 행정수단의 개선·향상은 제도 주제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정비에 한정시키로 한다。

二、地方行政 需要 變動의 豫測

1、지방행정수요의 의의와 예측방법

(1) 행정수요의 의미와 내용

행정수요란(Service needs)란 행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말한다。즉 행정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일반의 기대와 요구를 말한다。행정이란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공급」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사회적수요란 「행정에 구체화된 사회적 수요」와 「행정에 구체화될 사회적 수요」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행정수요는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및 요구가 그대로 구체적인 행정수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기대및 요구가 쟈꾸·鬪爭·妥協·協調을 통하여 그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와 요구에 基礎하면서도 그와는 별개인 「社会的需要」를 이룰때에 형성되는 것이다。

(2) 行政需要의 豫測方法

행정수요의 예측은 논리적 思考와 객관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將來에 예상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며, 사태의 발전을 계속 注視하는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豫測者의 풍부한 경험이나 가치관·판단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 또는 자료의 統計的 分析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도 있다。「다니엘 벨(Daniel-Bell)」같은 사람은 將來豫測의 방법을 열두개로 나누어 제쳐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중 중요한 방법 몇가지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外挿法이다。이 방법은 사회현상이란 그 過去-現在-未來間에 일정한 연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과거-현재간의 推移를 통하여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오늘날 人口增加推移, GNP增加推移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成長指數法(exponential growth)이다。이는 人口數·交通量·生産量등 사회제현상의 성장지수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째는 行爲樣態法(operational code)이다。이는 国民性등 국민들의 지배적인 行爲樣態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네째는 聯関法(associative-change)이다。이는 사회의 諸現象間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다른 사태도 발생하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不変法(persistence)이다。이는 현재의 사회현상이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2、지방행정수요의 변동

(1) 地方行政 與件의 變動

①政治的 여건의 變動

첫째로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관계의 多変化 속에서 韓国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전국민이 단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될것이다。

둘째로 国内政治的으로는 현대의 行政国家(Administrative state)경향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따라 行政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昂揚될 것이다。

②経済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国際経済的으로는 자원내셔널리즘이 넘두되는 속에서 韓国의 경제적 자립이 鞏固化와 交易圏의 拡大化를 위하여 온 国力의 경주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둘째로, 経済成長이 점차로 堅調勢를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의 均衡成長이 도모될 것이다。

③社会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社会分化가 촉진되고 核家族化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로, 国民들의 교육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思考의 合理化와 생활의 科学化가 촉진될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향상될것이다。

세째로 中小都市의 성장에 따라 인구이동이 다양화해지고 人口集中경향이 점차로 완화될 것이다。

(2) 地方行政需要의 変動

①産業化의 進行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変動性

첫째로, 産業化의 진행에따라 道路建設·水資源利用·交通·通信施設의 확충, 공업개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계속 커질것이다。

둘째로 국토의 圏域別행정의 需要가 증대할 것이다。

세째로, 산업화추진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공해를 예방·방지하는 행정이 중요한 분야로 擡頭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다。

②都市化의 진행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변동

도시화는 필요악으로 계속할 것이고 소득의 증대와 都市開発은 끊임없이 진전되고 생활의 질과 환경의 질의 제고시고자 하는 주민의 수요는 끊임없을 것이다。그럼에도 專門技術行政과 기업행정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 전문직식을 가진 管理者의 불황과 전문직원의 경시는 地方行政體制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줄 것이다。都市體制의 정비가 廣域都市圏과 지방의 安住生活圏의 정돈에 따른 機構의 調節및 行政機能의 適次統制를 전제로 한다면 계획우선의 확립이 時急할 것이다。

첫째로, 계획적 대상이 되는 행정수요는 廣域행정과 安住生活행정의 경제기반 조성과 物的開発機能이 될 것이다。

둘째로 처사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관리, 복지시설, 문화행정(도서관, 교육) 등이 대상이 된다。

세째로 안전과 보호적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찰·소방·민방위·소비자보호·그리고 면허등을 들수있다。

③정치·행정의 지향에 따른 지방행정수요의 변동。

첫째로 안보제1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민방위행정·비상계획의 수요는 여전히 클 것이다。

둘째로 全国土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조적인 자세를 지향함에 따라 새마을 행정의 수요도 계속 그 세를 유지할 것이다。

네째로 정보관리에 科学化의 행정리의 신속화를 위하여 행정정보·交通量·生産量등 사회제현상의 성장지수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째는 行爲樣態法(operational code)이다。이는 国民性등 국민들의 지배적인 行爲樣態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네째는 聯関法(associative-change)이다。이는 사회의 諸現象間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다른 사태도 발생하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不変法(persistence)이다。이는 현재의 사회현상이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계층구조와 구역의 개편

(1) 階層構造의 改編

우리 나라에 있어 정방행정 계층구조가 4계층으로 정착된 것은 대체로 甲午更張의 시기였다。그 후 지금까지 지방행정의 여건과 수요는 무수히 변화해왔지만 이 4계층구조는 변화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 4계층구조는 매우 비능률적이고 民主責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행정시책이 한 계층을 경유할 때마다 歪曲되고 파장되며 경직화되어서 末端階層에서는 歪曲되고 파장되고 경직화된 행정을 수행하기에 정신을 못차리게 된다。하급지방행정계층에는 裁量의 여지도 없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다。오직 파장된 상급계층의 지시에 따라 밤낮없이 뛸 뿐이고, 또 뛰어도 그 지시를 다 완수해 낼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방행정에 단위계층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로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관계의 多変化 속에서 韓国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전국민이 단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될것이다。

둘째로 国内政治的으로는 현대의 行政国家(Administrative state)경향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따라 行政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昂揚될 것이다。

②経済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国際経済的으로는 자원내셔널리즘이 넘두되는 속에서 韓国의 경제적 자립이 鞏固化와 交易圏의 拡大化를 위하여 온 国力의 경주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둘째로, 経済成長이 점차로 堅調勢를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의 均衡成長이 도모될 것이다。

③社会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社会分化가 촉진되고 核家族化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로, 国民들의 교육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思考의 合理化와 생활의 科学化가 촉진될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향상될것이다。

세째로 中小都市의 성장에 따라 인구이동이 다양화해지고 人口集中경향이 점차로 완화될 것이다。

(2) 地方行政需要의 変動

①産業化의 進行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変動性

첫째로, 産業化의 진행에따라 道路建設·水資源利用·交通·通信施設의 확충, 공업개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계속 커질것이다。

둘째로 국토의 圏域別행정의 需要가 증대할 것이다。

세째로, 산업화추진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공해를 예방·방지하는 행정이 중요한 분야로 擡頭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다。

②都市化의 진행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변동

도시화는 필요악으로 계속할 것이고 소득의 증대와 都市開発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생활의 질과 환경의 질의 제고시고자 하는 주민의 수요는 끊임없을 것이다。그럼에도 專門技術行政과 기업행정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 전문직식을 가진 管理者의 불황과 전문직원의 경시는 地方行政體制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줄 것이다。都市體制의 정비가 廣域都市圏과 지방의 安住生活圏의 정돈에 따른 機構의 調節및 行政機能의 適次統制를 전제로 한다면 계획우선의 확립이 時急할 것이다。

첫째로, 계획적 대상이 되는 행정수요는 廣域행정과 安住生活행정의 경제기반 조성과 物的開発機能이 될 것이다。

둘째로 처사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관리, 복지시설, 문화행정(도서관, 교육) 등이 대상이 된다。

세째로 안전과 보호적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찰·소방·민방위·소비자보호·그리고 면허등을 들수있다。

③정치·행정의 지향에 따른 지방행정수요의 변동。

첫째로 안보제1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민방위행정·비상계획의 수요는 여전히 클 것이다。

둘째로 全国土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조적인 자세를 지향함에 따라 새마을 행정의 수요도 계속 그 세를 유지할 것이다。

네째로 정보관리에 科学化의 행정리의 신속화를 위하여 행정정보·交通量·生産量등 사회제현상의 성장지수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째는 行爲樣態法(operational code)이다。이는 国民性등 국민들의 지배적인 行爲樣態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네째는 聯関法(associative-change)이다。이는 사회의 諸現象間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다른 사태도 발생하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不変法(persistence)이다。이는 현재의 사회현상이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2、지방행정수요의 변동

(1) 地方行政 與件의 變動

①政治的 여건의 變動

첫째로 국제정치적으로는 국제관계의 多変化 속에서 韓国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전국민이 단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될것이다。

둘째로 国内政治的으로는 현대의 行政国家(Administrative state)경향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따라 行政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昂揚될 것이다。

②経済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国際経済的으로는 자원내셔널리즘이 넘두되는 속에서 韓国의 경제적 자립이 鞏固化와 交易圏의 拡大化를 위하여 온 国力의 경주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둘째로, 経済成長이 점차로 堅調勢를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의 均衡成長이 도모될 것이다。

③社会的 여건의 変動

첫째로, 社会分化가 촉진되고 核家族化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로, 国民들의 교육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思考의 合理化와 생활의 科学化가 촉진될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향상될것이다。

세째로 中小都市의 성장에 따라 인구이동이 다양화해지고 人口集中경향이 점차로 완화될 것이다。

(2) 地方行政需要의 変動

①産業化의 進行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変動性

첫째로, 産業化의 진행에따라 道路建設·水資源利用·交通·通信施設의 확충, 공업개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계속 커질것이다。

둘째로 국토의 圏域別행정의 需要가 증대할 것이다。

세째로, 산업화추진에 부수하여 발행하는 공해를 예방·방지하는 행정이 중요한 분야로 擡頭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위생에 관한 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질 것이다。

②都市化의 진행에 따른 地方行政需要의 변동

도시화는 필요악으로 계속할 것이고 소득의 증대와 都市開発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생활의 질과 환경의 질의 제고시고자 하는 주민의 수요는 끊임없을 것이다。그럼에도 專門技術行政과 기업행정을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 전문직식을 가진 管理者의 불황과 전문직원의 경시는 地方行政體制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줄 것이다。都市體制의 정비가 廣域都市圏과 지방의 安住生活圏의 정돈에 따른 機構의 調節및 行政機能의 適次統制를 전제로 한다면 계획우선의 확립이 時急할 것이다。

첫째로, 계획적 대상이 되는 행정수요는 廣域행정과 安住生活행정의 경제기반 조성과 物的開発機能이 될 것이다。

둘째로 처사적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건관리, 복지시설, 문화행정(도서관, 교육) 등이 대상이 된다。

세째로 안전과 보호적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찰·소방·민방위·소비자보호·그리고 면허등을 들수있다。

③정치·행정의 지향에 따른 지방행정수요의 변동。

첫째로 안보제1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민방위행정·비상계획의 수요는 여전히 클 것이다。

둘째로 全国土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조적인 자세를 지향함에 따라 새마을 행정의 수요도 계속 그 세를 유지할 것이다。

네째로 정보관리에 科学化의 행정리의 신속화를 위하여 행정정보·交通量·生産量등 사회제현상의 성장지수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세째는 行爲樣態法(operational code)이다。이는 国民性등 국민들의 지배적인 行爲樣態를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네째는 聯関法(associative-change)이다。이는 사회의 諸現象間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다른 사태도 발생하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不変法(persistence)이다。이는 현재의 사회현상이 불변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仮定을 토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어느 방법이든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실제로 행정수요를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을 종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四、結語

이상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수요변동의 예측과 그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정비의 방향에 대해서 지방행정의 계층및 기구등을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나마 시찰해 보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단계에 있어서 지방행정조직의 정비는 지난 몇년 전부터 점차 나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이 남아 있다。그러한 제반목표와 시책들이 훌륭하게 결실을 맺자면 무엇보다도 18만지방행정인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 역사의 창조는 어느 時代 어느 国家를 만든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한 세대의 주체적인 사명과 정세 그리고 피와 땀의 희생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 시점에 있어서도 너무 절급한 수정을 바라지 않는다。충분한 시간과 상황을 파악하여 점차로 실천해 나가기를 권장하고 싶다。

여기서 기술하지 않은 많은 개선방향도 있을 것이다。본 논문으로는 지속해 나가는 것이 옳을 듯 하다。그 때까지는 안정된 질서속에서 성장과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 대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개발의 촉진과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1백만 미만의 市는 準指定市로하고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의 市는 指定市로 하며 2백만 이상의 市는 政府直轄市로 하여 準指定市는 道로부터 50~70%의 지시·감독만 받고 指定市는 30~50%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한다。

둘째로 面의 규모는 인구 1만내지 2만정도로 하고 그 이하나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진 面은 합병 또는 분할조정한다。즉 面·里의 통합이다。

세째로 交通網의 확장에 의해 생활권이 바뀌어진 곳은 전동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역경계를 조정한다。

제2단계인 1986년부터 2000년까지의 15년간은 인구 5만이상 市의 도시인구가 전국인구의 75% 이상으로 되는 시기다。전인구의 7~8할이 도시에서 살고 인구 2백만이상의 政府直轄市로 여러개 나타나며 교통의 발달도 공간상 시간거리도 단축된다。이 시기에 건설될 新行政道都는 서울市와 함께 국부총리직속하에 두고 道의 일부를 조정하여 8개道로 하되 개발계획권과 일치시킨다。市의 지위는 1단계와 같이 하고 郡은 도시화에 밀려 약화된 세력을 2~3개郡의 통합으로 보강하며, 面은 2~3개面의 통합으로 구역확장토록 한다。

제3단계인 2000년 이후에는 도시화율이 80%에 이르러 안정세가 되고 교통·통신 시설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루어질것이므로 方自治의 실시가 이루어질것이다。

첫째 內務部는 순수한 지방자치행정의 지원기능만을 갖는 地方自治部 또는 地方自治委員会로 전환시킨다。

둘째 비지방자치단체인 行政道都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행정부 산하에 둔다。

3、지방행정 구조 및 지방공무원제도의 정립

(1) 地方行政機構의 整備

①道行政機構의 整備

현재의 道의 행정은 몇 년전에 시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그 결과 중앙정부에서 기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과 말단 邑·面·洞에서 주민생활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을 거의 획일적으로 취급하여 그 任用·昇進·転補·報酬등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즉 많은 중간계층들의 단순한 업무를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남아있다。이것은 앞으로 다음과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어야할 것이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道의 행정기구에 公害防止 내지 環境保全의 문제를 전담하는 겨구가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기구 개편은

거울을 나는 意志現場

아르바이트

○…대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방학은 강의실을 떠난 제2의 ○…교육장이 되고 있다. 특히 70여일이라는 동계방학은 그지기적으 ○…로나 시간적으로 자신의 성숙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고 말할 ○…할 수 있겠다. 이번 겨울방학동안 제대인들은 사회에서 아르바 ○…이트나 서클활동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쫓 ○…아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었다. 이기 그 현장들을 추적해본 ○…다.

과의금지조치로 가정교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해져버린 지금. 대학인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굳이 학비보조나 사회생활에 대한 견문을 넓힌다는 등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강의실을 떠난 또 하나의 교육장으로, 생활 그 자체로 대학인들의 의식속으로 파고든다. 그만큼 아르바이트는 대학인들에게 제2의 생활로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교생의 경우 본교의 지역적 협소성등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83년1월17일 현재 학생생활연구소의 동계방학 부직알선 현황을 보면 3백17명이 도행정기관, 국영기업체, 경찰국, 금융기관, 호텔및 서비스업체, 산업체, 교내 그리고 기타 등에 취업되어 있다.

이들의 보수는 도행정기관, 산업체, 경찰국은 일당 3천5백원선이고 국영기업체, 호텔및 서비스업, 구내식당은 월8만원이며 교내도서관, 금융기관의 경우가 일당 5천원에서 7천원으로 가장 많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회사측의 대우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반응도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라고한다.

× × ×

가정교사이후 본교 남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방범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당초 오후10시부터 이튿날 새벽4시까지로 되어있었으나 두시간 앞당겨져 8시부터 2시까지로 주간에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밤에 출근하기 때문에 규칙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시내 동문파출소의 김명춘군(국학·1)은 『처음에는 밤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어 어리둥절했으나 시간이 조정되고 차차 야간근무가 익숙해져 그런대로 본래 생활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광소에 집중 경찰할 수 없는 경찰행정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학생 방범대원은 본도에서 시작하여 방옹이 돌아지자 서울등지로 확산되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입학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일당 3천5백원으로 『근무시간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 밤에 일한다는 애로사항을 고려해주었으면』하는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관공서의 경우 보수는 대체로 적은 편.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서류정리등의 일을 하고 있는 양순임양(식물·2)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표시가 없어 실수했을때 민원인들로부터 야단맞기가 일쑤이나 『그러나 학생임을 밝혔을 때는 너그럽이 용서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최선의 조건만은 아니다.

제일은행의 김미연양(사교·2)은 일당 5천5백원. 그러나 한일은행의 경우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다. 처음에는 피곤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런대로 익숙해졌단다.

즉, 금융기관도 각회사별로 다르긴 하나 그래도 다분 직종보다는 가장 대우가 좋은 곳이다.

이번 방학에는 남학생들의 공사장 취업이 거의 없었다. 있다면 북제주군청 건설과의 12명. 이들은 북군관내의 축산단 부락 혹은 도로변의 접도구역 팻말을 옮겨박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이정일군(국문·2)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며 차량이 지원되고 직원들의 대우도 좋아 힘들지 않았다』며 일당 5천원의 작업량에 비해 괜찮은 편이란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보람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한 자기성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일은행의 홍순생양(어문·1)은 보살핌을 받아오다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나마 친절을 배울 수 있는 입장이 됐다』며 흐뭇해 한다.

또한 수협도지부의 장인순양(사교·2)도 『아르바이트는 사회의 경험을 쌓아가며 대인관계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장·단의 양면성이 있듯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반드시 사회를 좋게만 볼 수는 없다.

농촌진흥원의 고영춘군(농학·1)은 『현실적으로 냉정한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고. 지난 연말에는 제주우체국에서 우편물 정리도 해봤다는 김군은 또한 『웬만한 아르바이트로는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한 20명이 있는 것 같다.

다방의 경우 대개는 오전 또는 오후에 세시간씩 아르바이트하는데 보수는 일주일에 1만원정도.

서클활동

대부분의 서클이 방학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봉사활동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수련회가 추가되고 있었다.

이들 서클_중 4-H연구회, 국제봉사회, 아마추어화가회, 스카웃505나 의식개혁운동과 거리질서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통질서확립캠페인활동에 흑죽단과 연합으로 1월17일부터 일주일간 참가하였던 스카웃505며 (회장·강민송 축산·2)가 그대표적인 예·SCI에서는 봉사활동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정기모임을 갖고 『SCI는 어디까지 왔나』라는 Education Discussion을 갖기도 하였다.

아마추어화가회(회장·숭용선 경영·2)에서는 3남4여등만 가파도에서 제2회 봉사활동과 수련회를 실시하여 짧은 기간분임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회원들의 얘기다.

『낙도에 홀로 떨어져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했을 때 새삼 도시인들의 이기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K양(어문·1)은 이들에게 만은 그러한 도시인의 때묻은 습관이 흐름되지 않았으면 하는게 소원이라고. K군(경영·2)은 「국민학생들에게 사생대회를 지도하고 그리고 그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던 사생대회가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어 활동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마디. 그런데 동회에서는 수시로 모임을 가져 작품평가회를 실시하는 등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한국대학생선교회(CCC회장·강조문 원예·2)에서는 교도소 위문봉사의 일환으로 제주교도소를 찾아 노래와 율동으로 그들쳤던 그들의 가슴에 웃음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한 회원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휘의 낱말으로 나타나는 현학전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말하기도. 이들 회원들은 영화 「예수」를 상영, 인간본연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개정의 길을 걷게 인도해주기도 하였는데, 본기자의 눈에는 이들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스럽기만 하였다.

「극예술연구회」, 「신세대」등의 문화예술서클에서도 방학을 맞아 실기연습은 물론 심오한 이론정립에만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연극의 부흥을 위해 불철주야 일을하고 있는 극예술 연구회(회장·김중효 미교·2)에서는 지난해 「카펜자」공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보다더 심층적인 연극을 위해 회원 각자 공부를 하며 힘을 모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매주마다 연극이론에 관한 회원들간의 토론회를 갖고 있는데 「1920년대 식민지하의 연극운동」 「정치와 연극운동」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연극운동」등은 그 대표적 발표주제들. 「지난해 한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더 깊은 연극을 공연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김회장은 「오는 3월초에 신입생 환영 연극 「枕義」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교문을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것.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에서 또다른 경험을 하는 제2의 인생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성숙에서 보람찾아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이해에 큰도움

「젊음의 가슴엔」제8집 편집에 여념이 없는 신세대(회장·우창용 국교·2). 「그 바쁜 여정속에서도 자체문화활동을 맹주 실시하고, 토론회도 계속 갖고 있다」고 한 회원은 그들의 노력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토론회는 「음악을 위하여, 구축서」 「객지, 향학원」 「그의 농촌경제및 제주도」 등등.

유일한 음악서클인 칼리오페(회장·수경·3) 회원들은 「발학이라 자신들의 무관심과 실천성을 자탄하고 있는데 이들이 평상시 실시하고 있는 Record Concert가 바로 그것. 겨울방학동안에 감상했던 대표적인 곡은 Vivald의 「사계」중 봄·여름과 F. Schubert의 현악4중주곡 제14번 D-minor등.

한편 원호자녀들로 구성되어 호우회(회장·강성호 사회·3)에서는 이미 1백23페이지에 달하는 「護友」회지 제2집을 발간하였고 지난 7일부터 4일동안은 6명의 회원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립농원에서 연수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지역적 여건으로 취업범위 좁아

「그런데 서클활동의 문제점은 역시 절차 그 활동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것. 졸업정원제 실시후 줄어들기 시작한 서클가입자가 회복될 가능성은 낙관하기 이렵고 더우기 올해부터는 신입생 가등하기 한학기를 마친 후에야 가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게 서클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이다. 그러나 서클활동을 몸소 뛰고 실천하는 학생들은 바로 그곳에서 대학의 멋과 낭만을 찾고 잘수하고 있었다.

× × ×

전통문화수호회의 기수를 내걸고 있는 탈춤연구회, 농학더, 탐라민속연구회등은 더욱 바쁜 모습들. 탈춤연구회(회장·좌명철 국문·2)의 경우는 평상시 했던 연습을 그대로 계속하고 특별연습으로써 장례탈춤연수를 일주일 동안 실시했다고. 그리고 2월말경 「탈의 소리」회지발간과 3월초 신입생 환영 공연으로, 창작탈춤인 「이라탈들이」를 공연할 계획으로 있다 한다. 「전통민속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탈춤반을 운영해 왔지만 현실과는 호흡이 안맞아 혼자하는 것에 불과할 정도」라며 「일반 대중과의 일치된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고 좌회장이 뜻을 피력하기도. 0양(가교·1)은 「우리 것을 알고 배운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지난해 등록되어 막내서클인 분재연구회(회장·김용환 원예·2). 「도시 산업생활에서 찌그러졌던 모습을 분재를 통하여 정화시켜나간다」고 말하는 회원들은 시내 분재원을 방문 작품감상의 안목을 넓히고 겨울철 분재관리의 방법을 익힐수 있었다고. 한 회원은 작품소재 발견과 회원들간의 친선도모를 위한 야유회와 자질함양을 위한 수련회를 실시하여 서클활동 운영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다고 한마디. 그런데 동회에서는 2월말경에 테라리움제작 계획으로 있다.

▲특집부▼

대학중추신경 再照明

통일문제 연구소

—7—

오늘날에와서 민족의통일문제는감정을 벗어난 이성이론적 차원에서연구되어져야 한다.

통일문제의 학술적연구가 목적
현재 통일안보의식 계도에주력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남으로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강대국들이 이해관계로 분할점도 38선이 그어지고 국토가 양단되었으며 민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러한 민족과 국토의 양단은 통일된 조국을 건하여서의 발전을 쫓을 도리가 없다. 특히 한반도는 남과 북이 각각 서로 다른 천혜적인 자연자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민족의 궁극적인 이상은 조국의 재통일이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단된지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오늘 남과 북은 이질화만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70년대 이래 우리민족의 염원인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불가침협정, 7·4공동성명, 6·23선언 등 평화통일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남북한 최고책임자회의, 통일헌법제의등 적극적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발맞추어 본교에서도 동북아 요충에 위치한 제주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안보연구소를 78년6월15일에 설치하였다.

同연구소의 설치목적은 주변정세의 변동과 아울러 통일안보정책상의 역할이 중요시 됨에 따라 한국의 통일안보에 관한 제반문제를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대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는데 관한 모집, 세째 대학내의 통일문제 학생서클지원, 네째 전국대학생 통일문제 토론대회 및 통일 캠퍼리 학생 참가후원, 다섯째 통일문제 세미나 논문집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同연구소는 통일문제 심포지움으로 창립년도인 78년 11월에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로 79년 「제1회 통일문제에 관한 학생 현장논문모집」에 따른 우수작품세미나」, 80년 「새대의 통일문제에 관한 교수 학생 세미나」, 81년 「남북한 관계에 관한 기본문제에 대한 교수 세미나」, 82년 「남북한 통일문제와 북한의 현황에 관한 세미나」등을 매년 열어왔다. 또 연구사업으로는 78년 동북아 정세변동과 통일안보정책상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양순임양(식물·2)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표시가 없어 실수했을때 민원인들로부터 야단맞기가 일쑤이나 『그러나 학생임을 밝혔을 때는 너그럽이 용서해 준다』고 한다.

관공서의 경우 보수는 대체로 적은 편.

제주시청 민원실에서 서류정리등의 일을 하고 있는 양순임양(식물·2)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표시가 없어 실수했을때 민원인들로부터 야단맞기가 일쑤이나 『그러나 학생임을 밝혔을 때는 너그럽이 용서해 준다』

大學人 이들은 누구인가

韓·日 관계

힘의 균형 이뤄, 대등한 동반자 되어야

>7<

최근 일본정부에 나까소네내각이 들어서고부터 한일양국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선린으로서의 교류를 위한 노력을 부쩍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1·12양일간에 걸친 나까소네수상의 방한과 더불어 1년8개월간을 끌어온 40억불 경제협력의 완전타결, 한일의원연맹 제10차 합동총회등은 지난 해의 교과서 왜곡사건과 이와 관련된 양국민 상호간의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 일본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 계기가 있었다면 지난 해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이 지리적인접국으로서만이 아니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수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이기에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한 솔한 고찰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지난 해의 그 충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가.

일본에 의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불분명하던 한일협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요구한 일대 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까지의 한일관계가 지극히 표상적이고 이기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일본은 1808년 명치유신으로 탁시까지의 봉건제도를 철폐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명치유신은 명천황 전만부시대의 경제내부의 생산력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제국의 시장 요구인 개국 강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치정부는 내부의 재정적 곤란과 외태 자본주의의 침식을 받아 명치유신은 불완전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에 일본은 서구 자본주의제국에 대항하고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 명치유신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대주의 빈곤 등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제국주의적 침략에 나서서 대만을 정벌하여 군비를 확장한 다음 첫번째로 한국에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행했다. 이것이 근대 이후 소극적이고 냉랭하던 한일관계가 일본에 의해 강압되어진 것이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귀속화시킨 후 36년을 수탈해 갔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36년은 을분과 치욕의 세월이었다.

그 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그들의 식민통치로부터는 해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은 실로 크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폐허를 한국동란시의 군수품조립 이윤으로 딛고 일어서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자유진영이라는 커다란 발판안에서 남북한에대한 동거리 외교, 한국의 강력한 반공정책, 미일한보조약의 영향아래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한 「무임승차」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볼 수있다.

현재 일본은 우리의 제일 커다란 수입대상국이며 기술도입도 60여%를 일본에서 들여온다. 또한 40억불 경제협력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큰 외채국으로 동장해 대일의존도의 심화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즉, 우리의 경제는 일본에 예속되어 있다시피한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쳐日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가. 교과서 파동후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되고 말았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선입감은 내면에서의 거부감을 동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과서 왜곡의 책임은 저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주체적 민족사관이라는 명분하의정립에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여 역사사실을 미화하는 듯한 감이있다.

그럼으로 일본의 왜곡을 비판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협의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 36년이 결코 잊을 수 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감정에만 치우쳐도 곤란하다. 감정에 앞서 어성으로 일본을 직시하고 서로의 해야 할 바를 생각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하겠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한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국가나 개인에게는 자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국력이란 군사력, 경제력, 정신력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오늘의 균형잡은 대일관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힘의 차이가 있으면 좀처럼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을 거부하기 보다 특히 경제적으로 뿌리깊게 침투해있는 일본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대학인들에게 있어 국력배양에 부응하는 최선의 길은 학문적 실력을 기르는 일이다. 또한 교수와 학생의 학문적 실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정부당국에서도 각별한 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 광 호 (상교·2)

오늘을 사는 大學人

—— 金 炯 秀

대학은 무한한 가능성의 場

수필

우리는 흔히 젊음을 자랑한다. 그것은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처럼 쏟아지는 빛줄기는 막한 창공을 쓸고 씻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의 가능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은 젊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그이유는 간단하다. 지나간 時間속에서 진실된 삶의 자욱을 남긴 젊음이 얼마 없었던 까닭이다.

하루를 보내는데 있어 자신의 삶에 진실된 부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지내온 지난 시간속에서 진실된 삶의 자욱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면 우리가 보내야 하는 오늘은 분명해진다. 젊은 날 주어진 시간에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려는 뜨거운 몸부림이 없다면 젊음은 결코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젊음이 유용한 까닭은 그 가능성때문이요, 그 실현이 가능한 까닭이다.

오늘날, 대학은 個人의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存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식을 체득해가는 과정이 결코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수용하고 있는 知的文化가 삶의 목적에 있어서 「수단」그것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 슬픈 일인 것이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과 푸름을 느끼게 된다. 가지가 울창한 나무가 있으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기 마련이다. 학교캠퍼스안에서 가끔 나무그늘을 찾으려면 만족할 만한 곳이 없음을 쉬이 알게된다. 우리의 정신의 쉼터도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파다하게 노출된 태양을 가리워줄 나무 한그루가 아쉬운 곳에 지금 우리는 신음하고있는 것이다.

大學人은 소속되어있는 知識人이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분명히 해야한다. 大學은 하나의 중건시민 양성소가 아닌 것이다. 信念이 없는 知的접근은 천박하고 수단에 상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인 자기성실성(自己誠実性) 없이 実利観念에만 支配되어있는 모습은 참다운 大學人의 얼굴이 아니다. 社会의 構造的모순과 制度的장치로 인해 大學이 그 교육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해도, 大學人은 意志的노력으로 이를 극복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한 가능성이 구체적 현실로써 미래를 차지하게 되려면 보다 진실한 삶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런 진실된 젊음을 수용하는 大學도 필요하다 하겠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人間을 많이 수용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이듯, 진실된 젊음을 보다 많이 수용하고 있는 大學은 발전하는 大學이다. 이에, 大學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필요하다. 이런 폭이 「大學文化」라고 생각된다.

大學은 그 나름대로의 文化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독자적인것이어야 한다. 大學에 있어서 文化의 主體는 大學人이다. 大學人은 既存의 文化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資質이 요구된다. 人間社会의 本質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文化의 理解가 중요하듯, 大學生活의 진정한 意味가 형성되려면 大學文化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다. 大學文化는 여러각도에서 記述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核心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學風이라 하겠다.

이에 그것을 수용할수는 資質이란 知的 成熟을 수반하는 것이다. 知的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大學人의 가장 근본적인 課題이다. 이것이 缺如된 대학생활은 삶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 가능하게 하는 것이 大學文化의 本流인 學風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理解의 성숙이 명확하지않고 그 윤곽 조차도 뚜렷하지 않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30년이란 세월이 이 학교에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쉬운 까닭은 무엇인가? 그이유는 간단하다. 지나간 時間속에서 진실된 삶의 자욱을 남긴 젊음이 얼마 없었던 까닭이다.

하루를 보내는데 있어 자신의 삶에 진실된 부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지내온 지난 시간속에서 진실된 삶의 자욱이 없었거나 부족했다면 우리가 보내야 하는 오늘은 분명해진다. 젊은 날 주어진 시간에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려는 뜨거운 몸부림이 없다면 젊음은 결코 유용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젊음이 유용한 까닭은 그 가능성때문이요, 그 실현이 가능한 까닭이다.

언제나 처럼 쏟아지는 빛줄기는 막한 창공을 쓸고 씻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가능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런한 가능성이 구체적 현실로써 미래를 차지하게 되려면 보다 진실한 삶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런 진실된 젊음을 수용하는 大學도 필요하다 하겠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人間을 많이 수용하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이듯, 진실된 젊음을 보다 많이 수용하고 있는 大學은 발전하는 大學이다. 이에, 大學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필요하다. 이런 폭이 「大學文化」라고 생각된다.

文學과 人間

김 병 문

文學은 언제나 인생을 예견한다. 인생의 의의에 맞춰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다. 연속한 인생의 해부자요, 계시자요, 지도자인 文學은 哲學이나 宗教와 동일한 使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일없는 自身과의 싸움을 요하며 심오한 思索, 人間愛, 등의 모든 고결한 要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文學을 멀리하는 경향이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高度로 발달한 時代에 그 고된 작업을 운운하는게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2백매라는 조밀조밀한 칸을 메워나가면서 언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 人生은 索莫해지고, 自身이 矮小하게 보이며 絶望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出世와 富의 蓄積이 人生의 最高目標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돈벌이도 안되는데 밤중까지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원고지의 빈 칸을 메우며 사는 作家는 同情의 대상이지 羨望의 対象이 아니며, 그들은 文學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一生을 경만한 価値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文學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가난이 뒤따르는 百害無益한 장난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비문학 계열의 공부를 주는 바탕을 제공한다. 現代人들은 어떤 状況에 처해 本能的, 感情的으로 응해 조그만 일에도 주먹이 나오고 칼이 꽂히고 총알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創作文學에 관한 글을 쓰면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생길 것이다. 그러나 人生의 마지막 날에 가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슬픔과 후회의 식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방법인 文學을 중시해야 한다.

創作文學은 人間의 墮落을 막고 그 가능성을 미리 豫防해주며 人間이 사라져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全人間의 希望이다. 文學을 職業的인 사람에게만 맡긴채 등한시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넓은 宇宙에서 하나의 작은 分子로 태어난 自身을 보고, 자기의 人生을 보람되게 살려는 努力을 해야한다.

눈앞의 조금만 利益이나 目的만을 중요시 하는 物質主義 傾向에서 빠져나와 당장의 댓가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면서 人間이라는 自負心을 가지고 文學을 보고, 人間性이 상실된 이 時代에 自身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볼 수 있는 時間을 가져야 하겠다.

문학은 인간이 사라져도 영원히 살아 남을수 있는 우리 全人間의 希望이다.

곰곰이

한명순

연재를 시작하며

수습기자로 입사한지도 어느덧 여러달이 되었다. 아직도 수습기자로서의 어설픈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반성해 보며 이 글을 쓰고있다. 나의 소개와 아울러 대학신문의 만화 만평등을탐닉해왔던 내 이전의 선배기자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림과 동시에 맞는 졸업을 축하 한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싶다. 설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일간지를 보면서 그림다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나와같은 만화 삽화 만평 쪽에 먼저 눈이 가곤 했었다. 신문에서의 톱기사와 얘기거리를 작은 면적에 넣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그런 재치에 대해 나는 대단한 매력을 느꼈었던것같다. 그러나 얼마되지않은 수습기자 기간동안 몇개의 만화를 내보였지만 공감성 부족과 내포된 뜻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지고 말았다. 그때마다 나의 기대와는 떨어진 상황에 씁쓸한 웃음을 짓곤 했었다. 그러나 마상 이 지면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떨림과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 신문의 작은 공간을 메꾸어 나가면서 여러장의 원고지 분량만큼 성과를 바라는 나로서는 결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할것 같았다. 또한 신문사내의 한구성원으로서 공동생활과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대학생활의 관찰과 깊이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해 본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바라던 일이니만큼 조금은 침체된 나를 향상시킴과 대학인의 의미있는 동행자 이고 싶고 대학생활의 보람과 함께 잊지못하는 내 머리속의 기억이고 싶다. 언제나 대학인으로서의 명분을 잊지않고 우리의 생각전달에 주력할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대학생들로서의 생각을 기다리고싶다.

〈사회및 심리계·1〉

〈영문학과·3〉

文化短信

카메라교실 열어

제주 YMCA에서는 22일부터 오는 3월17일까지(매주 화·목 오후 7시) 카메라교실을 열고 있다.

이번 카메라 교실에서는 카메라 조작법, 사진의 기초이론, 촬영실기등을 강의하고 있다.

신인작곡상 모집

한국작곡가 협회에서는 실내악곡·가곡·기악곡을 대상으로 제5회 신인 작곡상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이 작곡상은 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1차심사를 거쳐 이들의 작품을 오는 4월28일 국립극장에서 연주발표회를 열어 수상자를 발표하게 된다.

사진전 개최

서귀포시 영카메라클럽 (회장·오철웅)에서 주최하는 제2회 사진전이 지난 19일부터 시내 정원다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9명의 출품작 33점과 오순환씨의 찬조작품 2점 등 총35점이 전시되고 있는데, 영월읍회원은 대부분이 학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부터는 서귀포시 상미전시공간에서 그리고 모슬포에서 각각 4일간 전시회를 열었었다.

날개를 위한 덫

△短篇小說 연재▽

이 애 자 〈영교·3〉 作

한 명 순 〈미교·1〉 畵

<마지막회>

영주는 가슴 속에 쌓았던 돌담이 흐물흐물 다 헐어내리는 부녀정을 느끼며 아무 말없이 걸어 나왔다. 창자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노인네의 오열이 간헐적으로 밀어지고 있음을 등 뒤로 느끼며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들 모두의 완전한 고향이기에 비애가 너무 많았던게 아닐까, 가슴 속에서 무수히 돌을 내리고 가끔은 침을 시키면서 삐꺽거리는 관자 조각을 안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날개 한쪽이 상처를 받을 때 어머니의 깊은 가슴 속에서는 수없이 날개가 부러졌고 진한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숙명적으로 아파했던 분들이었다.

파도는 또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다.

무형(無形)으로 부서지는 바다라는 거대한 육체의 파편들, 누덕누덕 기우는 진통을 아파하지 않고 모텟편의 먹이로 주고 있다. 그리고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갈 수 있는 순수한 일렁임, 그러나 구김살 없이 돌아올 수 있는 파도의 생(生)에 대한 용기, 그것은 영주 자신의 동경이었다. 고요하면서도 움트는 희열의 삶.

어둠의 암흑색 눈빛은 어느새 많이 다가와 있었다. 머얼리서 보이는 등대의 고즈넉한 불빛은 만선의 여운을 안고 포구 아래를 비추고 있었다. 영주는 모래를 밟으며 걷다가 바다가 고향인 사람들을 떠올렸다. 바다 이면에 숨겨진 신비의 세계와 수평선 너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뜨거운 갈구와 집착은 이네들로 하여금 바다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파아란 바다는 그들에게 날개를 꿈꾸게 했고, 날개가 창조될 수 있는 건강한 덫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일지도 모른다. 준이 바다를 포기하고 노인네의 마음밭바닥에서 그처럼 장인하고 끈질긴 한이 짐질 때는 불안한 순순의 흔들림도 멈추고 날개는 영원히 잠이 드는 순간일 것이다. 인간은 이처럼 무언가를 부여잡고, 그것이 주는 진실한 의미를 꿈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선생님」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파도에 묻어 들려왔다. 영주의 오른 손은 살랑거리는 긴 머리가락에 머물렀다. 작은 놀림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빚어지는 그녀의 습관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림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준에게서 귀향자의 냄새를 느꼈던 것이다.

집에 가다 선생님 모습이 보여서 달려왔다는 준의 옷음은 환했다.

「그런데 선생님, 집을 뭐쳐나가 도시로 나갔었죠. 무작작한 도시 사람들의 기계적인 틈바구니에서 며칠 동안 아무런 까닭없이 선생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러더니 저는 역시 돌팡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둔 바다의 출렁임 앞에서 그녀와 준이는 말할수 없는 연대감을 느낀 채 바다의 일부가 되어있었다. 바다와 영주와 준이는 한 운명체로 묶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절망할 권리가 없는가 보구나, 어디든지 무관한 사람들만이 사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 집에 가보겠어요, 할머니가 부쳐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겠지?」

「……」

그러나 준이는 미소를 띄었다. 밝은 준이의 웃음에서 밀물을 기대하는 썰물의 빛을 보았다. 상처가 아물어 갈 듯한 좋은 증상이었다. 그녀는 준이가 상처를 치료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생각했다. 준아, 혈액이 모자라면 내 피를 수혈해주련다. 우리는 혈액형도 같구나, 날개형? 아니다, 비상형이겠지.

그러나 두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혈(血)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었다. 혈관 바닥이 마르는 날이면 세상의 모든 비난과 자신의 회의에 놀랄지 모르니까.

하지만 상처를 두려워하지는 말자 꾸나.

「녹아버린 익카루스의 날개는 어떻게 하겠니?」

그녀의 가볍한 웃음을 받으며 준이는「무모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시 꿈꾸어야지요」하고 대답했다. 그녀와 준이는 마주 보며 크게 웃었다. 부서지는 포말의 함성을 들으며 그녀는 교사로서의 보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

〈끝〉

제주도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관광상담은 한라여행사로 !

=영업안내=

●육지수학여행 ●육지일반관광여행
●도내수학여행 ●산업시찰

신혼부부 가족단위 소수인원을 위한
제주도 일주 매일 정기관광운행

*출발시간 : 매일오전9시
*출발장소 : 한라여행사

(주)한라여행사

제주시 연동 300~4 ☎ ⑦ 5271~3

(축)

여러분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고급신사 숙녀화
특 수 화·수제화 } 전문

그리이스

제주시 칠성로
☎ ③ 3794

개강 3월3일

역시제일 !

영어 일본어

*English900 (초급·중급·고급)
*성문핵심영어
*TOEFL(이재옥저) 처음부터
*표준일본어교본 (초급·중급·고급)
*일본어회화 일본어정복69일
*일본어속성회화

●자유로운 시간선택 (새벽,오전,오후,저녁)
●대학생의 외국어 실력 향상
●각종시험대비 (취직,승진,유학,기타등)

외국어의 명문
아카데미외국어학원
☎ ③ 4912